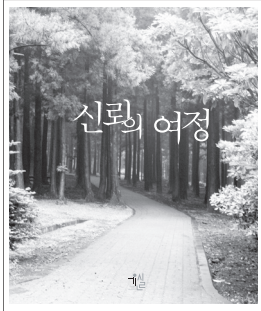


신뢰의 여정

| 기윤실열매소식지 | 2008년 4~6월

2008년 기윤실 열매소식지 “신뢰의 여정”(4월~6월)



발간개요 기윤실은 2007년부터 신뢰가 주도하는 사회와 교회를 만들어가는 운동(Trust Initiative)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신뢰운동을 전개하면서 어느 조직보다 먼저 기윤실이 신뢰받아야 함을 인식하고, 투명성과 책무성, 공공성을 견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 기윤실과 여러 시민단체가 논의하여 만든 시민단체 사회적 책임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정리하여 '2007년 기윤실 사역보고서 - 신뢰의 열매'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기윤실은 더 나은 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기대하며, 궁극적인 우리의 비전인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한 보고 내용을 담은 기존의 소식지(격월) 양식을 넘어 기윤실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파트너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업의 중요성에 기반하여 사역열매를 정리한 “신뢰의 여정”을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작성기준 본 열매소식지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국제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3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시민단체인 기윤실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변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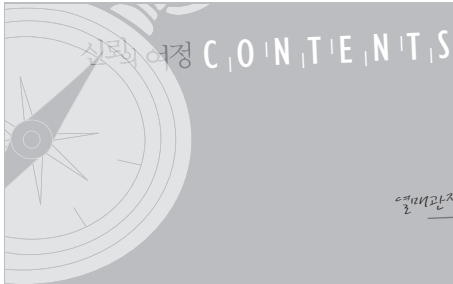
GRI G3 가이드라인		기윤실
프로필		① 열매소식지 소개, 조직구조, 목차, 비전체계도, 비전메시지
보고 원칙 및 지침		② 열매 관점 핵심사업 선정(중요성)과 협력파트너(이해관계자) 소개 / 9대 핵심사업
이해관계자		③ 협력적 관점 회원, 교회, 임원, 연대단체
경제		④ 재무적 관점 회계보고(전 분기와 비교하여 보고), 후원자명, 재정투명화 원칙 소개
환경		⑤ 환경적 관점 내부적 노력, 외부대상(교회, 회원) 캠페인
사회	노동여건 인권부분 사회적부분 제품책임	⑥ 학습과 성장관점 간사역량, 조직역량, 영성개발
기타		⑦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 광고

※ 기윤실만의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 5개의 관점을 정리했습니다.
①열매관점 ②협력적 관점 ③재무적 관점 ④환경적 관점 ⑤학습과 성장 관점

보고기간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의 활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타 본 소식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여 재생지로 만들었습니다. 표지 종이는 고지율(재생펄프 함유율) 20%의 그린라이트이며, 본문종이는 고지율 60% 이상의 중질만화지를 사용하여 공기름으로 인쇄하였습니다. 형광증백제,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역대적 관점

행위적 관점

학술과 성장 관점

재무적 관점

기타

환경적 관점

열매소식지 개요	002
목차	003
비전메시지	004
핵심사업 선정소개	006
핵심사업소개1 입사·사교육 바로세우기 기독교운동	008
핵심사업소개2 9대 핵심사업 열매성취율	010
회원정책자문단 활동보고	012
간사들의 영적 성장 : 신뢰받는 삶을 위한 도전	014
역량강화교육 및 협력을 통한 변화 일정 보고	015
1~3월 회계보고	016
1~3월 후원명단	018
활동보고·활동계획·기도제목	020
창의상상이야기 비목재 종이를 아시나요?	022
책광고 건강한 교회조직 만들기(MP)	023
환경캠페인 실천하는 기윤실 "종이컵은 사양합니다"	024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전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타자를 배려하고 환대하는 문화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윤실 열매소식지 2008년 4-6월호 통권 210호
 소재지 140-011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217 세대빌딩 401호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E-mail cemk@hanmail.net 홈페이지 www.cemk.org
 발행인 우정록 발행일 2008. 5. 2
 편집인 양세진 편집 조계호, 임희연 디자인 김문

' 섬기는 ' 사람들

이사 우창록(이사장) 강영안 권경희 김동호 김일수 김충환 김홍섭 박상은 박은조 방선기 백종국 송인수 오정현 이
 동원 이우근 이의용 이장규 전계준 정예주 정현구 조홍식 주광순 황형택 감사 임정빈 황호찬 공동대표 김동호 김
 일수 이장규 주광순 정직신뢰성증진운동본부 김병연(본부장) 삶의정치 · 윤리운동본부 김선욱(본부장) 생활신앙
 실천운동본부 신동식(본부장) 목회지리대심포럼 황영익(운영위원장) 창의여성리더십위원회 김은혜(위원장) 신
 은정 신재용 심경미 정성진 정희경 최정은 기독교윤리연구소 노영상(소장) 강영안 장건구 김병연 박노숙 박준용
 손화철 송해룡 신국원 정성진 최계덕 최태연 우태화 디자인경영위원회 이순인(위원장) 이재우 정용태 최철웅 신
 파범은 일터인들기위원회 이용기(위원장) 김인숙 박재우 신학위원회 김영일(위원장) 김동준 김승곤 김은혜 김행민
 노영상 문시영 민종기 박득훈 송준인 신국원 신기형 신원하 양낙홍 유경동 이상원 이혁태 임성민 정광덕 정원범
 정종훈 조용훈 홍순원 황봉환 사무총장 양세진 사무처안금주(부장) 조계호(팀장) 최육준(간사) 임희연(간사) 김
 문(협동) 김지숙(협동) 윤나래(협동) 한병선(협동) 김영윤(인턴) 협력단체 건강한국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 공의정치
 실천연대 · 교회개혁실천연대 · 교회문화연구소 · 기독교영영연구원 · 기독교문화사회 · 기독교공명실천연대 · 기독교학문연
 구회 · 낙태반대운동연합 · 뉴스미션 · 크리스천라이프센터 · 놀이미디어교육센터 · 성서한국 · 좋은교사운동 · 직장사
 역연구소 ·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기윤실네트워크 담당자 연락처

광주 조영미 국장 062-222-5382	부산 이재안 국장 051-462-1558	안동 권정훈 간사 054-857-7025
울산 류형철 간사 052-285-2072	익산 박병주 목사 018-231-0684	인천 우조은 간사 032-867-2740
전주 김윤배 목사 063-644-0492	전주 1055-753-1484	청주 이철호 국장 043-274-5852
대전 김주홍 처장 042-322-6464	LA 유용성 직로 cem_la@yahoo.com	워싱턴 강창제 직로 info@cemusa.org

“ 사명으로서 기윤실은 진리를 향한 신뢰의 여정 속에서
기존에 활동 중심의 단순 나열에 머물던 소식 전달의 방식을 넘어서
기윤실 사역을 좀 더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신뢰의 여정

기윤실은 단지 하나의 사업이나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한 “사명”입니다. 사명으로서 기윤실은 균형을 갖고 조정해 가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운동의 열매라는 측면에서는 한국사회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사역들을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필요한 일들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문제들을 찾아내고 해결해 가는 사역이 내실 있게 실행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운동의 협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기윤실과 관계 맺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사회, 전문가 자원 리더십, 동역 교회, 회원, 단체(기관) 등)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면서 협력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운동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재정적으로 투명하게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윤실을 위해 애정 어린 기도와 재정적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의 마음에 합당하게 책무를 다해 사역을 수행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기윤실을 위해 기도하고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것이 다

른 어떤 단체에 후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열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지속가능한 후원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으로서 기윤실은 이처럼 다양한 내·외적인 부문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비전 공유, 자발적 참여를 통해 탁월한 열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찰하고,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도전하면서 탐색해가는 신뢰의 여정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인 언어로 월 단위로, 분기 단위로, 년 단위로 사역을 정리하여 마치 하나의 작품인양 설명해 내지만, 실상은 우리의 열정과 생명이 아낌없이 소진되는 그 날까지 중단될 수 없는 지속적인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기윤실의 사역은 작품이 아니라 단지 과정일 것입니다. 기윤실은 마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리를 향한 길 위를 걷고 있는 일종의 순례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명으로서 기윤실은 진리를 향한 신뢰의 여정 속에서 기존에 활동 중심의 단순 나열에 머물던 소식 전달의 방식을 넘어서 기윤실 사역을 좀 더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회원님들의 삶의 자리로 보내드리는 소식지는 마치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와 같은 구조를 따라 기윤실의 사역이 정말 지속가능한가, 사명으로서 기윤실은 진리를 향한 신뢰의 여정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게, 부드럽고 편안하게 그러나 사명으로서 기윤실을 위해 애정 어린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회원들의 입장에서 내가 후원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게 쓰여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사명으로서 기윤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한국사회와 교회 앞에 신뢰할 만한 기독교 민운동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우창록
공동대표 김동호 김일수 이장규 주광순
사무총장 양세진



9대 핵심사업 선정

기윤실은 2008년도 사업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회원이 진정한 주인으로 참여하는 기윤실 운동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08년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회원들의 의견 개진과 투표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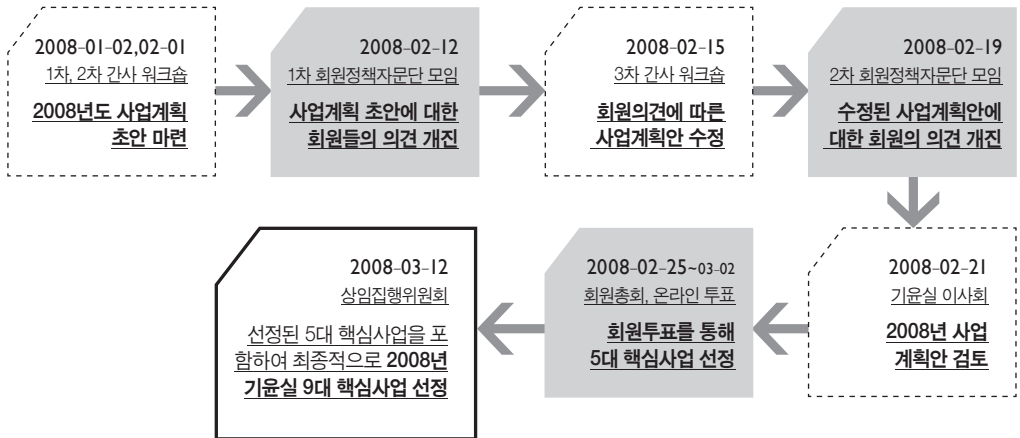
이번 사업 결정 과정에서 회원들께서는 2번의 회원정책자문단 모임을 통해 사무처 상근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그렇게 정리된 사업안을 놓고 회원총회와 온라인 회원 투표를 통해 5대 핵심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기윤실은 선정된 5대 핵심사업과 함께 상임집행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기윤실이 시대적으로 감당해야 할 4가지 사업을 더해 최종적으로 “2008년 기윤실 9대 핵심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2008년 기윤실 9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될 2008년 기윤실 사역가운데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기윤실은 먼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 열정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는 이사, 본부장, 사무처 간사들의 주도성 뿐만 아니라 기윤실을 위해 애정어린 후원과 기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회원들의 의견과 참여를 존중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08년 기윤실 9개 핵심사업 선정 과정



2008년 운동 영역별 기운실 9대 핵심사업

※ 밑줄 친 사업은 회원 투표에 의해 선정된 5가지 핵심사업입니다.

- 1. 입사·사교육
바로세우기 기독교운동
- 2. 기독교와 삶의정치 컨퍼런스
- 3. 창의여성리더십아카데미

사회신뢰회복운동
삶의정치·윤리운동
창의여성리더십위원회

- 1. 신뢰회복캠페인
(회원확대, 기운실홍보, 교회
내·외부신뢰도측정, 저작권)
- 2. 교회재정투명화운동
- 3. 목회자리더십포럼

- 1. 정직한 성도·
신뢰받는 교회 30일 교재
발간 및 목상나눔 모임
- 2. 기운실 목요 포럼

회원실천운동
생활신앙실천운동
회원가치모임
Mission Bank

교회신뢰회복운동
정직신뢰성증진운동
기독교윤리연구소
목회자리더십포럼

협력운동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나눔 운동





입시·사교육 바로세우기 기독교운동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교육 바로 보기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를 꼽으라면 교육문제가 빠지지 않을 것이다. 교육문제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입시문제로 요약이 되며 그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사교육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은 교육의 문제이지만 어느 외국 대사의 말처럼 아이들의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 교육을 빙자해서 많은 아이들이 혹사당하고 있으며 결과를 보아도 비교육적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경제, 나아가서는 국민경제를 흔드는 재정적 문제이기도 하다. 가계가 어려운 이유의 중심에는 사교육비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해법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아직 대안이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세상은 문제로 인식하고 논의라도 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그렇게 된 이유는 입시와 사교육에 관해서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조금은 다르게 보고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세상과는 다르게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의 믿음은 이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저 세상과 똑같은 목표를 세운 후에 그것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되고 있는 것 같다. 수능을 위한 기도회가 바로 그런 예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입시와 무관할 수는 없다. 사교육을 무시하며 살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들의 입시에 대한 욕심이나 이 때문에 일어나는 사교육 열풍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다. 입시 제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와 입시 제도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더라도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입시와 사교육에 대한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런 의식을 논리적인 설득으로 풀기는 어렵다.

여기서 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교회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세속적인 가치관

으로 형성된 입시에 대한 생각을 먼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생각을 쉽게 바꿀 수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입시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수립하기만 한다면 지금처럼 입시 때문에 불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교육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사회의 사교육은 교육을 위한 도구를 넘어서 의지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사교육에 의존하기보다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기독교적인 대안을 내어 놓아야겠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들과 똑같이 불안해 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도록 가르치고 도전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오늘 입시와 사교육의 문제로 힘들어 하는 성도들이 붙들고 나아가야 할 주님의 약속이다.



입시하기운동 강연회

기윤실에서는 입시·사교육 바로세우기 기독교운동(입시기 운동)의 일환으로 바람직한 기독교 교육관에 대한 강연회를 시작합니다. 기윤실 이사이자 직장사역연구소 소장인 방선기 목사가 직접 교회나 기관을 찾아갑니다. 본 강연회는 성도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특히 입시·사교육과 관련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 시기 | 5월 초~ 12월 말, ● 강연 |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교회 여전도회, 전교인수련회 등

- 문의 및 신청 | 임희연 간사 02-794-6200, lhy1244@naver.com
- 강연회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회 혹은 단체는 기윤실로 문의 바랍니다

방선기 목사와 함께하는 입시하기운동 회원 간담회

기윤실에서는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입시·사교육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방선기 목사와 함께하는 이번 회원 간담회는 입시·사교육에 관련된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동시에 기윤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기독교 교육관을 가지고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하신 모범적인 사례를 찾아 당사자를 모시고 귀한 경험을 듣고 입시·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안까지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기윤실이 입시기 운동을 해나가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추후 기윤실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담당 | 임희연 간사 02-794-6200, lhy1244@naver.com



2008년 기윤실 9대 핵심사업 열매 성취율

운동영역	사업명	담당
사회신뢰 회복운동	1. 입사·사교육 바로세우기 기독교운동(입사기운동)	방선기 목사 임희연 간사
	2. 기독교와 삶의정치 컨퍼런스	김선욱 교수 최욱준 간사
	3. 창의여성리더십아카데미	김은혜 교수 윤나래 간사
교회신뢰 회복운동	4. 신뢰회복캠페인	정책기획팀 조제호, 최욱준, 임희연
	4-1. 한국교회신뢰지표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조제호 팀장
	4-2. 교회저작권운동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조제호 팀장
	5. 교회재정투명화운동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조제호 팀장, 최욱준 간사
	6. 목회자리더십포럼	황영익 목사 조제호 팀장
회원 실천운동	7. 정직한 성도·신뢰받는 교회 30일 교재 발간 및 목상나눔 모임	신동식 목사 최욱준 간사
	8. 기윤실 목요 포럼 “저자와의 만남”	노영상 교수 임희연 간사
협력운동	9. 지구촌빈곤퇴치를 위한 나눔운동	양세진 사무총장 임희연 간사

* 100이 되면 핵심사업에 대한 열매를 성취한 것으로 봄

세부사업명	0	50	100
연대단체 출범			1차 목회자간담회
입사기 모델 찾기			
방선기와 함께하는 입사기 회원간담회/강연회		홍보중	
정치적제자도 세미나			4월세미나 개최(민중기)
정치적제자도 설교집			설교집 발간 홍보
기독교와 정치실천 컨퍼런스			
기독교와 여성 소그룹 성경공부		1강 시작	
창의여성리더십아카데미		홍보중	
창의여성 대화모임(월1회) 1강 시작		1회	
교회캠페인			
Wow 교회 UCC 공모전			
신뢰회복운동 미디어 홍보			
1+1=희망 회원배가운동			
한국교회신뢰지표 설문측정			7교회 설문조사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공동주최 섭외	
공개SW 활용매뉴얼			서문작성
저작권가이드북 재발간			
교회재정운영규정 공청회 및 가이드북 발간			공청회
목회자 납세 지원운동		TFT구성	
교회재정 종합매뉴얼 발간			
목회자리더십포럼 개최(3회)			1차 포럼
신뢰받는 목회자를위한 7H 리더십 워크숍(2회)			1차 워크숍
목회자윤리강령 제정			
30일 묵상 교재 출판			최종본 피드백 중
핵심가치 묵상모임(권역별)		홍보중	
매월 목요포럼 개최		1차	
화이트밴드 캠페인			
회원나눔운동 전개			



회원 여러분은 단지 기윤실에 회비를 후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윤실 운동의 주인이자 사무처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그런 회원 여러분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루어가기 위해 사무처에서는 회원정책자문단을 통해 회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정책자문단 활동 보고

● 회원정책자문단이란?

회원정책자문단은 회원 여러분께서 기윤실의 주인으로서 참여하여 기윤실 운동을 평가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구성된 회원 모임입니다.

● 회원정책자문단 명단(가나다 순, 11명, 온라인 참여 포함)

권오재, 김종민, 김진표, 김현준, 문학준, 박상규, 박제우, 정은창, 정인에, 하재웅, 허남

● 회원정책자문단 활동 일지

1차 모임 2008년 2월 12일(화) 오후 7시 ~ 오후 10시

2차 모임 2008년 2월 19일(화) 오후 7시 ~ 오후 10시

● 주요 의견 정리

- ☐ 토론회 등의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후로도 기윤실 운동과 연결되면 좋겠다.
- ☐ 비전 체계, 전략 등을 설명하는 용어들이 너무 어렵다.(운동본부 명칭, 임파워먼트, 핵심가치, trust initiative 등)
- ☐ 신뢰운동을 하기 전에 기윤실이 먼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 ☐ 삶의정치·윤리운동이 기윤실의 중요한 운동이 될 것 같다. 기독교인이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보다 사회를 향해서 삶의 정치를 이야기하면 좋겠다.
- ☐ 평소에 Q.T, 기도 생활도 잘 못 지킬 때가 있는데 미션뱅크를 잘 실천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 ☐ 공통 분모(관심 영역, 지역, 직업 등) 별로 회원 모임을 계속 만들면 좋겠다. 회원끼리 자주 얼굴을 봐야 한다.
- ☐ 교회의 묵묵한 희생과 섬김을 찾아내서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 ☐ 교회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스스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운동을 하면 일반 사람들도 기윤실과 교회에 대해 신뢰를 회복해 갈 것이다.

- ☐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아직 기윤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일반 기독교인들로부터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 ☐ 기윤실 회원은 대체로 정적이다. 회원들이 좀 더 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기윤실 회원에 대한 교육 활동을 많이 하면 좋겠다.
- ☐ 기윤실의 장점인 풍부한 강사들과 운영 경험 등을 제공&활용해서 개 교회 신뢰회복에 기여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자원봉사실천가이드북은 기대가 크다.

● 조치 사항

회원 의견	조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에 QT, 기도 생활도 잘 못 지킬 때가 있는데 미션뱅크를 잘 실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 1주일 시간 중 봉사 위해 1% 이상 할애하는 것은 아군 많고 아기 어린 직장인들의 경우 교회 봉사를 제외하면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으로 만들어 회원들의 실천을 권유하려는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 2008년에는 소식지마다 실천 아이템을 소개하는 정도로 진행하고 이후 계획은 연말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체계도의 3영역과 사역일정표 상의 구분이 달라서 혼동된다. ☐ 2008년도 사업 리스트를 3영역별로 구분해서 정리하면 좋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도 사업 리스트를 3영역(3mission)+협력운동, 총 4개 카테고리 분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모든 자료집과 사역일정표, 우선순위 투표를 위한 자료 등에 구분된 사업 리스트를 적용하였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 결과가 3영역 운동 중에 한 쪽으로 기울이지 않을까 염려된다. 3영역별로 균형있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 3영역 중에서 각 영역마다 3표씩 투표권을 주고 3표 중 1표는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나머지 2표는 선택적으로 하도록 하면 좋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 투표시 한 영역마다 3표씩 투표권을 주고 한 영역에 1표는 반드시 투표하도록 방법을 수정하였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정책자문단을 상설화하고 공식 조직으로 두면 좋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상설화 하되 상황에 따라 모이기로 하고 기윤실의 공식 조직으로 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 향후 활동 계획

- ☐ 분기에 한번 정기적 모임을 통해 그 동안 진행된 기윤실 운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 ☐ 사안에 따라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모임을 진행합니다.
- ☐ 회원정책자문단은 기윤실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최옥준 간사, 070-7019-3759, chamcu@hanmail.net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오름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10:43~45)

간사들의 영적 성장 신뢰받는 삶을 위한 도전

사명으로서 기윤실 운동이 탁월한 열매를 맺도록 활동하는 3가지 중요한 주체가 있습니다. 한 주체는 이사회와 전문가 자원 리더십입니다. 다른 한 주체는 동역교회와 회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주체는 바로 간사입니다.

‘행복한 소가 좋은 우유를 만든다.’는 광고 카피처럼, 기윤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탁월한 신뢰의 열매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역량을 갖춘 간사들이 요청됩니다.

간사들이 직업의 차원을 넘어서 사명으로서 기윤실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활동의 경험이 더해갈수록 힘이 빠지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4:16)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Renovare).”

이처럼 기윤실은 신뢰할 만한 간사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학습과 성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월 독서비를 지원하여 책을 읽는 간사가 되도록 돕고 있으며, 4월부터는 저자를 초청하여 직접 강의를 듣는 포럼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단체의 필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외부 교육에 참여하여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역과 관련된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있으며, 올해 여름부터는 2박 3일 동안 새로운 운동의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는 영감을 구비할 수 있도록 국내외 창의와 상상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기윤실 간사 창의와 상상 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1월 일본 연수를 다녀온데 이어 매해 해외 연수를 통해 간사들이 폭넓은 경험과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윤실의 간사들이 늘 의식적으로 깨어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늘 마음에 품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사들이 의식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운동의 대상과 관련된 2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신뢰의 열매를 온전하게 산출하고 있는가?’ 다른 하나는 ‘우리를 신뢰하는 회원들의 격려와 후원에 온전하게 응답하고 있는가?’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간사 스스로에게 던지는 4가지 성찰적 질문이 있습니다.

- ① 기윤실 사역은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삶인가?
- ② 기윤실 사역을 위해 내가 가진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 붓고 있는가?
- ③ 기윤실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 내가 가진 창의성과 주도성을 온전히 발휘하고 있는가?

④ 지금 여기에서 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사역을 하고 있는가?

운동선수들이 날마다 연습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듯이, 기윤실 간사들 또한 위의 4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정직하게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앨리스터 맥그라스는 [기독교 영성베이직에서 영성(spirituality)이란 '실제 삶에서 한 개인의 종교적 신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며, 한 개인이 믿고 있는 바를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사들의 영성은 컴퓨터를 치고, 보고서를 만들고,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들과 연락하고, 회의를 하고, 사회와 교회의 신뢰를 위해 전개하는 다양한 이슈와 캠페인 등 기윤실의 모든 사역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명으로서 기윤실 간사의 영성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선교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순교'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교육

- 1.7(월) 10:00_헨리 나우웬의 「편드레이징의 영성」 나눔 간사모두
- 1.15(월)~20(토)_창의상상 일본연수 간사모두
- 1.21(월) 10:00_「그룹 지니어스」에 대한 창의상상 발표 양세진
- 2.11(월) 14:00_도쿄기독교대학 이나가키 교수 강연회 참석(백석대) 양세진, 조제호, 임희연
- 2.29(금) 16:30_국제개발협력분야 1차 단기연수 (경희대 국제대학원) 임희연
- 3.10(월)~12(수)_지속가능경영과 GRI 리포팅 교육(한국표준협회) 조제호
- 3.17(월) 10:00_「우리 공동의 미래」 독서나눔 간사모두
- 3.24(월) 10:00_지속가능경영 발표 조제호
- 3.25(화) 14:00_어메이징 그레이스 영화 관람 간사모두
- 3.26(수) 16:30_박원순 변호사 사회적기업 특강 참석 양세진, 조제호, 임희연
- 3.27(금) 16:30_국제개발협력분야 2차 단기연수 (경희대 국제대학원) 임희연
- 4.3(목) 13:30_ISO 26000 해설과정(지속가능경영원) 교육 조제호
- 4.4(금) 15:00_창의상상을 위한 파주 해일리 예술마을 견학 간사모두
- 4.7(월) 10:00_송인수 대표 특강 "입사사교육 바로세우기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간사모두
- 4.9(수)~10(목) 12:00_입사사교육 바로세우기 기독교운동 방향설정을 위한 간사 MT (가락재영성원) 간사모두

- 4.14(월) 10:00_김호경 교수 특강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와 여성" 간사모두
- 4.17(목) 19:00_1차 기윤실 목요포럼 (저자와의 만남) - 노영상 교수 간사모두
- 4.25(금) 16:30_국제개발협력분야 3차 단기연수 (경희대 국제대학원) 임희연
- 4.26(토) 10:00_4차 기윤실 공공신학 세미나 간사모두

협력을 통한 변화

- 1.24(목) 13:30_CLF(기독교변호사회) 인턴십 최옥준
- 1.25(금) 7:30_시민단체사회적책임 회의 양세진
- 1.30(수) 9:30_지구촌빈곤퇴치네트워크 총회 참석 조제호, 임희연
- 1.30(수) 17:30_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회의 조제호
- 1.31(목) 13:30_CLF 인턴십 임희연
- 2.14(목) 13:30_CLF 인턴십 임희연
- 2.15(금) 12:00_시민단체사회적책임운동 회의 양세진
- 2.18(월) 18:00_성서한국 집행위, 이사회 연석회의 양세진
- 2.20(수) 18:00_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회의 조제호
- 2.21(목) 13:30_CLF 인턴십 임희연
- 2.22(금) 10:00_기독교언론 기자간담회
- 3.6(목) 16:00_블런티어 21 미팅 (교회자원봉사매뉴얼 협의) 양세진
- 3.12(수) 19:00_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회의 조제호
- 3.13(목) 11:00_한목협 미팅(교회재정투명화 운동 협의) 양세진, 조제호

**2008년 1월~4월
역량강화교육 및 협력을
통한 변화 일정 보고**



본 코너는 학습과 성장을 위해 간사 개인뿐 아니라 기윤실이 조직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담고 있습니다.

- 3.20(목) 19:00_성서한국 집행위원회 조제호
- 3.21(금) 7:30_시민단체사회적책임운동 회의 양세진
- 3.25(화) 11:00_정애주 신임이사 미팅 간사모두
- 3.26(수) 6:30_사랑의교회 정감기도회 참석 (2008년 기윤실 9대 핵심사업 소개) 양세진
- 4.3(목) 14:00_이우근 신임이사 미팅 간사모두
- 4.16(수) 10:00_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회의 조제호, 최옥준
- 4.17(목) 17:00_성서한국 집행위원회 조제호
- 4.18(금) 18:00_기윤실 이사 영성수련회 (덕수교회)
- 4.23(수) 16:00_목회자 내세 TFT 회의 (한목협, 기독교변호사회) 양세진, 조제호, 최옥준



01~03

기간¹ 2008년 01월 01일부터 2008년 3월 31일 까지

		수입		지출	
계정과목	2007년 10월~12월	2008년 1월~3월	계정과목	2007년 10월~12월	2008년 1월~3월
I. 사업수익	81,438,000	69,928,500	I. 사업비용	82,256,987	69,746,122
① 회비	34,896,000	38,753,000	① 인건비	15,148,527	16,922,792
㉠회원회비	29,066,000	30,498,000	② 사무관리비	12,077,714	11,461,740
㉡이사회비	3,465,000	3,895,000	③ 사업비	55,030,746	41,361,590
㉢지역회비	2,365,000	4,360,000	㉠사업인건비	17,325,000	19,141,180
② 일반후원금	31,172,000	27,655,000	㉡사업행사비	18,880,926	7,075,610
㉠교회,기관후원금	30,857,000	27,520,000	㉢홍보사업비	7,669,030	7,283,380
㉡간사후원금	145,000	135,000	㉣교육훈련비	242,550	665,670
㉢현물후원금	170,000	-	㉤지역사업비	4,623,240	5,195,750
③ 특정후원금	14,950,000	2,920,500	㉥발전기금	6,290,000	2,000,000
④ 사업수입	420,000	600,000	II. 사업외비용	-	139,000
II. 사업외수익	612,206	3,839,962			
수 입 계	82,050,206	73,768,462	지 출 계	82,256,987	69,885,122
당 기 감 소 액		206,781	당 기 증 가 액		3,883,340
총 계	82,256,987	73,768,462	총 계	82,256,987	73,768,462

1. 이번 회계보고부서는 수입, 지출의 유동성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전 분기와 함께 보고드립니다.
 2. 자세한 월별 운영성과표는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언제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3. 기윤실은 재정에 있어서 더 높은 투명성을 견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기준을 통해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모든 후원금은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 2) 매달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소식지,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 3) 연 1회 이상 외부 공인회계 감사를 받고, 이를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 4) 정부나 기업으로부터는 단체운영이나 인건비 명목의 후원은 받지 않습니다.
- 단, 단체의 사명 실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업비 명목의 후원은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5)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허위로 하거나, 차명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윤실 후원구좌 (예금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국민은행 037-01-0504-979 | 우리은행 821-05-002520 | 농협 074-01-121183 | 우체국 012401-01-001137 | 기업은행 070-013538-01-022
 제일은행 377-10-025628 | 신한은행 326-05-010678 | 하나은행 109-228746-00104 | 외환은행 144-13-05572-6 | 씨티은행 136-50810-258

간사 후원구좌 (예금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국민은행 812-01-0115-671 | 지로번호 7530353

신규회원 명단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월 1일~ 3월 31일



- 1월! 최우석(DP0800009) 이우민(DP0800010) 안솔(DP0800012) 유재균(DP0800013)
- 2월! 최혜림(DP0504842) 박병문(DP0512351) 나영재(DP0517331) 류형철(DP0700131) 정효제(DP0800017)
노규래(DP0800020) 이승철(DP0800025) 엄영진(DP0800026) 박동민(DP0800027) 이승원(DP0800028)
- 3월! 허영진(DP0800031) 김갑삼(DP0800036) 손덕순(DP0800040) 서세란(DP0800042)

1월 회비

(1천) 강동수 김광자 (2천) 권호재 기승우 오동훈 (3천) 김대만 김소연 김은이 김인숙 명효중 문현주 박경희 방승연 손교식 손상일 손은순 신희선 원종민 원철 이주영 이진희 장연순 정영미 조진영 조현 (4천) 김진철 정지연 (5천) 강구림 강대용 강영수 강영실 강은영 강현주 고영준 고은상 공미자 관환용 구세정 국미나 권오재 김겸은 김경순 김규성 김기섭 김기협 김동석 김명자 김문정 김미자 김미혜 김삼숙 김상윤 김상은 김상환 김석돈 김신희 김성길 김성득 김수정 김신일 김영 김영옥 김영철 김우경 김유숙 김은지 김이수 김재균 김정민 김정민 김경원 김홍조 김주열 김주원 김준영 김철호 김태정 김한나 김한선 김해자 김향이 김현희 김혜경 김홍환 김효민 김희정 김희철 나영식 나현재 나현길 노승아 라광호 류용우 문경환 문용주 박기일 박명실 박민선 박상돈 박서현 박세진 박수정 박영주 박윤정 박은조 박재호 박정민 박정일 박종식 박지영 박재규 박재경 박찬용 배진성 백인남 백지영 백혜림 백학식 변화순 서단비 서동진 서동진 서인할 서효정 석기경 성백경 송시섭 송종영 송철학 신대희 신동립 신동일 신동필 신수현 신중기 신명은 안신길 안경은 안현식 오명현 오성덕 오세란 오창섭 원호용 유인식 유지성 유광주 유희경 윤근 윤성우 윤여송 윤영희 윤은정 윤재길 윤현희 이근 이경옥 이경진 이경희 이계형 이광남 이국은 이금숙 이금아 이기우 이도훈 이동희 이백경 이병삼 이상재 이수룡 이수환 이은자 이승민 이영분 이윤희 이은성 이은자 이정민 이정선 이정옥 이정희(A) 이정희(B) 이종숙 이종안 이종혁 이창미 이창자 이창학 이필성 이혜정 이혁재 이희순 이희철 임강우 임종호 임현숙 장관 장상진 장기정 장준혁 전장덕 전건우 전희숙 장미자 장병선 정선우 정성진 정수덕 정유선 정연애 정철모 정태순 정학영 제철모 조계인 조이라 조영미 조용환 조종호 조철현 지연심 진민주 최경우 최경석 최덕수 최승수 최성재 최영애 최용인 최용문 최인영 최정철 최종문 최지영 최지현 최현중 하재중 하현주 한기미 한기재 한석관 한윤희 한희희 한재량 홍정진 황병일 황인창 (7천) 신명호 안정신 유영신 윤혜교 이은화 (1만) 김대원 강병길 강석우 강승철 강은경 강준식 강진호 강현아 강영구 강요호 강희철 고선우 고교숙 고정환 공경숙 구정환 권민규 기세중 기진호 김경철 김계홍 김광복 김광수 김광환 김근배 김기수 김기현 김남희 김달수 김대민 김덕기 김동준 김두희 김명금 김명수 김병환 김문자 김미영 김병일 김성경 김성근 김성상 김성수 김성심 김성철 김성태 김성호 김수자 김원철 김영규 김요모 김영복 김영은 김영주 김예운 김요열 김용미 김우경 김은수 김의진 김익수 김재홍 김재환 김장기 김정실 김경숙 김동필 김중하 김중우 김지숙 김지태 김진오 김진우 김진표 김태훈 김하영 김하복 김현태 김형중 김혜정 김혜진 김혜창 김홍주 김효상 김홍식 김희정 남경자 남궁실 남대일 남승립 남태일 노규호 노희영 도인호 도홍주 두준기 류기성 류병현 류양식 마은숙 문영민 문규 문은식 민영호 박경준 박규용 박동원 박문규 박복에 박복수 박봉순 박상규 박영범 박용준 박용옥 박윤애 박은하 박인애 박인자 박장순 박재규 박재강 박재형 박정민 박종구 박준영 박주현 박지연 박찬운 박철원 박철원 박태순 박기홍 배복호 배정호 백상민 백승현 백영옥 백정근 백준현 백준우 변철식 변현정 변희중 서순오 서종순 서태원 서현희 서은주 손은은 손은정 손창우 송미우 송병문 송복순 송인호 송재기 송태현 송택호 송형록 신동진 신은정 신진주 신정인 신명관 심옥의 심재운 안금주 안건우 안정란 양병이 양신진 양신옥 양유진(연준) 양지영 양태홍 양홍길 오덕수 오동훈 오상은 오성만 옥성일 우태주 원영대 유석중 유선민 유영준 유원옥 유은상 유정운 유지숙 유해부 유원숙 유홍열 윤관중 윤나래 윤성용 윤소연 윤양숙 윤용호 윤치호 윤태호 윤형주 이강현 이경자 이관중 이광주 이근무 이금순 이대성 이동철 이명실 이문규 이방용 이병환 이봉민 이석철 이석형 이신희 이상숙 이상진 이상환 이수정 이수진(A) 이수진(B) 이요한 이윤현 이윤호 이원애 이윤정 이윤현 이윤희 이은섭 이재운 이정식 이정은 이정자 이준민 이진희 이찬호 이철수 이철진 이현도 이현숙 이현호 이호식 이희영 이훈배 유용의 안호 임성수 임성애 임일태 임종록 임태규 임희연 장기화 장문영 장민 장병조 장선희 장성록 장지연 장춘복 장재형 진병선 진종갑 진태수 정광현 정득근 정병오 정연실 정연희 정영호 정영문 정윤재 정유진 정은숙 정은정 정영주 정인용 정원철 정화선 조규복 조부성 조영관 조용진 조윤 조은경 조인호 조제호 조준희 주선정 지삼열 지상실 지숙자 차미영 차성용 차원준 천홍아 최근영 최근희 최기철 최삼옥 최영희 최용 최은정 최경아 최정은 최종현 최태영 최희석 최호은 최희영 태원우 행정호 하유수 한기목 한동훈 한상호 한인에 한인철 한지연 허병산 허주희 홍관삼 홍상희 홍기우 홍재영 황교식 황문용 황철진 N.P.D.I (1만1천) 사봉우 이홍식 (1만2천) 윤영식 (1만3천) 김은영 허남 (1만5천) 강병관 김상민 배정주 안연희 양병희 오미영 윤미정 윤영관 이윤아 정재일 (2만) 고지아 권대식 김경미 김광은 김국자 김남기 김미숙 김민숙 김상범 김성필 김세진 김신근 김신형 김영철 김재영 김정호 남재환 노효식 박대호 박득훈 박방문 박병태 박상홍 박성진 박영애 박은기 박인희 배승현 배준민 손영철 손화철 송승태 송인숙 송원진 신국원 신교진 심순실 심현주 심재영 안성도 양나눔 윤인호 오혁진 우원수 유근호 유영미 유혜련 윤기정 윤신희 윤철중 윤철준 윤이정 이상진 이상진 이우길 이원영 이은미 이은숙 이재문 이정 이창지 이현도 임병호 임정수 임혜정 장영순 정광연 정민경 정용복 정우찬 정은영 정혜숙 조우철 조윤재 조혜미 최성수 최형석 최윤선 최희중 추진연 한규희 한병선 한혜숙 함복식 홍관수 홍인숙 (2만5천) 이범식 (3만) 강민아 권병희 김선숙 김성현 김홍철 김진석 김진호 김현준 박준수 박복용 박재우 박정민 백기숙 손기식 신우현 신동현 안준범 임원훈 유성오 윤희경 이은근 이희석 임성민 장철복 전용우 정문희 정성지 정영주 재홍석 전근구 최복용 홍대식 황기문 황석주 (3만5천) 박준호 (4만) 파사매 김나신 김상근 유인복 박신애 원용삼 최수환 (5만) 김경태 김명실 김상환 김성미 나상민 박종운 박창근 서미선 신은정 안미영 이진숙 이희영 임종우 전갑룡 전형준 정철도 조성규 최광사 최승민 최태민 (6만) 권오용 백병희 이수경 (10만) 김동호 김신옥 김인숙 김중환 김재진 이규원 이만일 이우근 (12만) 박광호 (15만) 손보호 이이홍 (17만6천4백4십) 노영상 (20만) 강영인 김구 김대준 김병현 김학민 권재중 정광재 (30만) 우창록 (40만) 권혜일 (50만) 박은조 박선기 오영현 이동원 (52만) 김홍섭 (55만5천) 조홍식 (60만) 김일수 (70만) 이장규 (100만) 권광희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회비를 납부하신 분들입니다. 영수증을 대신하여 입금 내용을 실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착오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고, 본부에서는 서을 및 미초지 지역 회비관리하더라도 지역 회원게서는 각 지역 소식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안금주 부장 070-7019-3756)

교회·기관후원금 (1만) 평영교회 동서장로교회 서울일민교회 (3만) 평천교회 (5만) 나눔교회 마산제교회 밀양교회 부천평안교회 서울광영교회 서울영동교회 6회전도회 서울영동교회화사회 서진교회 수성교회 열린문교회 지구촌교회 (6만) 안양교회 (8만) 강변교회 (10만) 고척교회 공사성무교회 남서교회 다나교회 대신감리교회 대구산인 동부광성교회 두레교회 목원교회 민들레교회 반월중앙교회 부천연교회 분당샘물교회 분당사랑교회 빛과생명교회 서울남교회 신안포교회 언덕교회 영세교회 은혜와영광교회 일산은혜교회 잠실중앙교회 전주안디옥교회 지비전인터내서년 청량교회 (20만) 주머인 안암제교회 할렐루야교회 화평교회 (30만) 남교교회 목산침례교회 성서교회 향성교회 (40만) 남서은혜교회 (50만) 일원동교회 (75만) 한영교회 (100만) 높은뜻소회의 서울영동교회 지구촌교회 (200만) 사랑의교회



2월 회비

(1천) 강동수 김광자 (2천) 권운태 가용서 오동춘 정지연 (3천) 김대만 김은이 김인숙 명호중 문현주 박희경 방승연 손규식 손상일 손은순 신희선 원종민 원철 이정훈 이주영 이진희 장연순 정영미 조인진 조현 (4천) 김진철 (5천) 강구섭 강대용 강영수 강영실 강은영 강현주 고영준 고은상 공미자 권오재 김점순 김경숙 김규성 김기섭 김기철 김동석 김명자 김문정 김미혜 김삼숙 김상윤 김상은 김상환 김석돈 김선희 김성길 김성득 김수정 김영 경영옥 김영철 김용미 김우경 김은지 김의선 김이수 김재관 김정원 김정원 김중호 김우열 김준영 김태정 김한나 김한선 김혜사 김향미 김현희 김혜경 김홍환 김효린 김희정 김희철 나영식 나현길 노승아 노희원 라광호 류기성 류종우 문경환 문정옥 박기업 박명섭 박민선 박상돈 박서현 박세진 박수정 박영수 박윤정 박재호 박정민 박정일 박종석 박지영 박태규 박혜경 박환승 배진성 백인남 백지열 백혜림 발하식 변화순 서단비 서동진 서동현 서일향 서효정 석기정 생백경 송시설 송종영 송철하 신대희 신동립 신동일 신동필 신수현 신동진 신평은 안정은 안현식 오병현 오미영 오민재 오상덕 오세란 오창섭 원호용 유지성 유광수 유희경 윤근 윤성수 윤여숙 윤영희 윤은경 원현희 이근 이경옥 이경진 이경희 이계원 이광남 이국준 이규아 이기용 이도훈 이동혁 이백정 이병삼 이서재 이수룡 이수환 이순자 이숙민 이영분 이옥희 이용아 이은성 이은자 이정민 이정선 이정옥 이정희 이정희 이종숙 이종혁 이창미 이충자 이창학 이필성 이해영 이혁재 이해원 임강주 임종호 임현숙 장관 장병조 장상진 장익 장준혁 전장덕 전진우 전희숙 정미옥 정병선 정선우 정성진 정수덕 정유진 정인애 정철모 정학영 체천모 조계민 조이라 조영미 조용환 조은경 조종호 조철현 지연식 천원우 최경구 최경식 최덕수 최성재 최영애 최유권 최인영 최정원 최종린 최지영 최지원 표현중 하재용 하현주 한기재 한석환 한재량 홍정진 황인창 (6천) 김수연 이슬이 (7천) 신병호 안정선 유영선 윤해관 (1만) 강대현 강병길 강민아 강석우 강승철 강은경 강진호 강현아 강행구 강오인 강홍구 강희철 고선욱 고승표 고정환 고지아 권명희 권민규 기세출 기진호 김경천 김재홍 김광한 김기수 김기현 김남희 김달수 김대인 김덕기 김두희 김병금 김병찬 김문자 김미영 김병일 김승경 김성재 김성상 김성수 김성신 김성현 김성태 김성호 김수자 김연현 김영모 김영봉 김영은 김영주 김영철 김예은 김효열 김우정 김은수 김익수 김재민 김재홍 김재환 김경섭 김경숙 김경호 김동민 김종필 김홍하 김지태 김진오 김진우 김진표 김진호 김태훈 김하영 김학동 김현태 김형준 김혜정 김혜진 김혜정 김홍식 김홍주 김효상 남경자 남규철 남태일 남승립 남태일 노규호 노종수 두종수 류양식 마은숙 문경민 문규 문윤식 박경순 박문구 박복에 박복순 박상규 박상훈 박성범 박용서 박용준 박윤배 박은하 박인자 박인희 박작성 박재규 박재장 박재형 박정일 박종구 박종민 박주원 박지연 박철규 박철민 박태순 박태영 배기홍 배복희 배정호 배상인 백영숙 백현주 변철석 변현정 변희준 서순우 서인선 서태민 서현희 소은중 손석진 손은숙 손은정 송미옥 송병문 송복순 송인호 송계자 송준민 송태현 송태호 송형록 신동진 신은정 신진수 신장민 신광규 심대진 심재홍 안인숙 안신길 안정환 양병이 양산근 양신숙 양인복 양지영 양태훈 양홍철 여은은 오덕수 오도훈 오성만 옥성일 원영태 원용삼 유익중 유선민 유영준 유원옥 유은상 유정윤 유지숙 유해무 유현숙 유영준 윤관중 윤미정 윤상용 윤소영 윤양숙 윤종호 윤치호 윤태호 이강현 이경자 이광주 이근우 이금순 이길승 이동철 이방옥 이병환 이봉민 이석형 이신희 이상진 이송자 이수진(A) 이수진(B) 이요한 이윤천 이윤준 이원애 이유민 이윤정 이원철 이윤희 이은섭 이인영 이재윤 이정석 이정필 이준원 이진희 이찬호 이창직 이철수 이철진 이현도 이현숙 이현호 이호식 이해영 이훈배 인훈 임일택 임종록 임태규 임기화 장민 장선화 장성록 장지민 장춘복 장혜경 전병선 전병화 전종갑 전태수 정득근 정병오 정연실 정연희 정영호 정영훈 정용복 정윤채 정유진 정은숙 정은창 정익수 정일윤 정현철 정혜숙 정희선 조경하 조규봉 조무성 조열재 조유진 조우철 조운 조은호 조준호 조진원 조혜미 주신경 지상영 지상식 차미영 차성용 천경준 최근영 최근희 최기철 최삼옥 최우석 최은정 최정아 최정윤 최창명 최태영 최희석 최효은 최희영 추진영 태원우 팽정호 하숙희 하유수 한기훈 한동훈 한상호 한인에 한인철 한지연 허병산 홍기홍 홍만삼 홍인기 홍혜영 황문용 황철진 N.P.D.I (1만1천) 서승오 이홍식 (1만2천) 윤영석 (1만3천) 김은영 허남 (1만5천) 강병관 김갑신 김준철 배정주 양명희 윤영관 장철복 정세열 한영희 홍일선 (2만) 구에리 국승택 권대식 권택식 김경미 김광은 김국자 김나선 김남기 김미숙 김민숙 김병식 김상범 김성진 김승일 김승호 김신근 김신형 김윤수 김재형 김지숙 남재환 노효식 박대호 박득훈 박명근 박명배 박은미 배승관 배승현 배준원 백경원 백희원 서무일 손영길 손창우 손화철 송승태 신국원 신우철 신호근 심순실 안성도 양낙홍 양정식 오인호 우현수 유근호 유명미 유혜연 윤기정 윤나래 윤신희 윤철중 홍 이명자 이상규 이상민 이상진 이수경 이원영 이윤남 이은숙 이재문 이정 이택진 임병호 임강수 임혜정 임희연 강영순 정광원 정진경 정성식 정예리 정은영 조은홍 최국희 최성수 최영식 최희원 최혜중 한국의 한병선 홍관수 홍상의 홍영주 홍인중 (2만5천) 이범식 (3만) 김진옥 김성현 김진식 김철준 문석용 박만자 박종진 백기숙 손기식 신종현 안금주 양유진(엄준용) 엄용환 유성오 윤혁경 이준규 이희석 임성민 정문희 정유정 조성산 채홍식 최동욱 최옥중 홍대식 황기민 황석주 (3만5천) 박대형 조성연 (4만) 락상배 김지영 류인복 박관근 이미순 조재호 함복식 (5만) 권강희 김경태 김병식 김상환 박종문 박광준 신은정 이만열 이의용 임종우 전형준 정철도 조성규 최광사 최승원 최태연 (5만5천) 조홍식 (6만) 구능희 서진희 한상호 (10만) 김동호 김인숙 김민숙 김일수 김중환 양세진 이우근 (13만) 박재우 (15만) 손병호 (17만) 김학민 (20만) 강영란 김구 김대문 이장규 임지용 전재중 정광재 (30만) 우창록 (31만5천) 안연희

교회·기관후원금

(1만) 광영교회 동서장로교회 서울일본인교회 (2만) 할피교회 (3만) 은평침례교회 (4만) 빛과소금교회 (5만) 나눔교회 늘푸른교회 마산제기교회 밀양교회 부천평안교회 서울광영교회 서울영동교회(여전도회) 서울영동교회권사회 서진교회 수경교회 열린문교회 지구촌교회 (6만) 연약교회 (8만) 장병교회 (10만) 고교회 기독교경영연구원 남서울교회 다니엘교회 대신감리교회 대주산업 동부평생교회 두레교회 목민교회 민들레교회 반월중앙교회 부천예인교회 분당생물교회 분당소망교회 빛과생명과교회 서울남교회 신반포교회 언덕교회 영세교회 은혜와영광교회 일산은혜교회 잠실중앙교회 전주안디옥교회 지비전전터내교회 (15만) 향상교회 (20만) 주머임 기독교회사의 서울중앙교회 안암제일교회 일원동교회 정음중앙교회 할렐루야교회 화평교회 (30만) 남포교회 (40만) 남서울은혜교회 (70만) 전주연일교회 (75만) 한영교회 (100만) 높은뜻송의교회 서울영동교회 지구촌교회 (200만) 사랑의교회



3 월 회 비

(1천)강동수 김광자 노경애 이슬이 (2천)권용태 기용서 오동훈 정지연 (3천)김대만 김소연 김은이 김인숙 명호중 문현주 박경희 방순영 손교식 손상일 손은근 신희선 원종민 원철 이진의 장연순 정영미 조인진 (4천)김진필 (5천)강구섭 강대용 강영수 강영실 강은영 강현주 고영준 고은상 공미자 권오재 권택성 김갑순 김경숙 김규성 김기섭 김기협 김동석 김명자 김문정 김미혜 김삼숙 김상용 김상은 김상환 김석돈 김신희 김성길 김성득 김수정 김영경 김영옥 김영철 김용미 김우경 김은지 김익선 김이수 김재근 김정민 김정민 김홍조 김준영 김태정 김태훈 김하나 김한성 김해자 김향이 김현희 김혜정 김홍환 김효린 김희정 김희철 나영식 나현길 노수아 라창호 류종우 문경환 문정옥 박기업 박명섭 박민선 박상돈 박시현 박세진 박수정 박영수 박윤정 박재호 박정민 박종식 박지영 박태규 박태경 박환승 배진성 백경민 백인남 백지영 백혜림 범학식 변화순 서단비 서동진 서동진 서일향 서효정 손은민 송시식 송종영 송철하 신대희 신동현 신동일 신동필 신수현 신중기 신평은 안창은 엄현식 여신은 오명현 오미영 오민재 오상덕 오재관 오창섭 원호용 유지성 유창수 유희정 윤성우 윤여송 윤영희 윤은경 은현희 이근 이경옥 이경진 이경희 이계형 이광남 이국은 이금아 이기용 이도훈 이동혁 이병삼 이상재 이수룡 이수환 이승민 이승원 이영분 이옥희 이용아 이은성 이은자 이정민 이정선 이정옥 이정희(A) 이정희(B) 이종숙 이종안 이종학 이창미 이창자 이창학 이필성 이해영 이혁제 이희열 임장우 임종호 임현숙 장관 장상진 장익 장준혁 전병화 전창덕 전진우 전희수 장병선 정선우 정성진 정수덕 정유선 정인애 정철모 정학영 제천모 조계인 조성연 조아라 조영미 조용환 조은경 조종호 조철원 저숙자 저연실 친민우 최경구 최경식 최덕수 최성재 최영애 최용근 최인영 최종민 최지영 최지훈 최현표 최재용 하현주 한기미 한기재 한석찬 한영희 한재광 홍인식 홍정진 황인창 (6천)남영란 (7천)신병호 안정선 유영신 유혜관 (9천)김민식 (1만)강대현 강명길 강석우 강승철 강은경 강진호 강현아 강형구 강효인 강홍구 강희철 고선옥 고승표 고지아 권병희 권민규 기세홍 기건호 김경현 김계홍 김광란 김기수 김기현 김남희 김달수 김대인 김덕기 김명금 김명환 김문자 김미영 김병일 김사무열 김상경 김성진 김성상 김성실 김성천 김성태 김성호 김수자 김승호 김연철 김영모 김영봉 김영은 김영주 김예은 김요열 김우정 김윤수 김은수 김익수(A) 김익수(B) 김재홍 김재환 김정식 김경옥 김경옥 김경환 김주원 김지수 김지태 김진오 김진우 김진표 김진호 김태훈 김하영 김학동 김현태 김형중 김혜정 김혜진 김혜창 김홍섭 김홍우 김희상 김희정 김희경 남궁설 남대일 남대일 남태일 남호호 도동수 두준기 류기성 류양식 마은숙 문경민 문규 문석윤 문은식 박경준 박동민 박문규 박병주 박복애 박봉순 박분순 박상규 박상홍 박영범 박용준 박윤배 박은조 박은하 박인자 박일화 박장순 박재규 박재창 박재형 박정민 박종구 박종민 박주원 박지연 박찬길 박철원 박태순 박태영 배기용 배복희 배승관 배경호 백상진 백영숙 백준현 백현주 변철식 변현정 변희중 서순오 서민선 서태원 서현희 소은주 손은숙 손은정 손창우 송미옥 송병문 송복순 송인호 송계기 송준민 송태현 송태호 송형록 신동진 신은정 신진수 신정인 신평관 신태용 안금주 안선옥 안신길 안정란 양병이 양승원 양신근 양신숙 양유진(양준우) 양민봉 양정식 양정식 양태홍 양홍길 옥덕수 오동훈 오성만 옥성일 원영대 원운삼 유석중 유영준 유원옥 유은상 유재규 유정윤 유지수 유혜부 유현숙 유홍열 윤관중 윤미정 윤성용 윤소성 윤양숙 윤제길 윤종호 윤태호 이강현 이경자 이광주 이근무 이금순 이길순 이동철 이병환 이불원 이상규 이상혁 이선희 이선진 이성호 이수진(A) 이수진(B) 이요란 이윤천 이윤홍 이원애 이유민 이윤남 이윤정 이윤원 이윤희 이은실 이재윤 이정석 이정영 이준원 이진희 이찬 이창직 이철수 이철진 이택진 이현도 이현숙 이현호 이호식 이화영 이훈배 인훈 일일택 임종록 임태규 장기화 장민 장신화 장성록 장지연 장춘복 장재경 정준갑 정태수 정광현 정득근 정병오 정상진 정애리 정연실 정연희 정영훈 정은재 정유진 정은숙 정은창 정익수 정현철 정혜초 정화신 정효재 조경화 조규봉 조무성 조성산 조용진 조우철 조윤 조인호 조제호 조진영 조혜미 주신경 지삼영 지상심 차미영 차성용 천경훈 최근영 최근희 최기철 최삼욱 최우석 최옥준 최을 최은정 최정은 최정철 최태영 최혜식 최호윤 최희영 추진연 태원우 팽정호 하유수 한귀득 한동훈 한상호 한인에 한인철 한지연 허명산 허영진 홍만삼 홍기규 홍혜영 황문용 황병민 황철진 N.P.D.I (1만1천)서중오 이홍식 (1만2천)김은영 (1만3천)김은영 허남 (1만4천)이춘화 (1만5천)강병관 김경희 김상인 배재수 배정주 안연희 양명희 윤영관 이진영 임은호 정철복 정세열 (2만)공경숙 권대식 김경미 김광은 김국자 김나선 김남기 김미숙 김민숙 김병식 김상범 김성필 김세진 김신곤 김계영 김지영 남재환 노효식 박대호 박복순 박명근 박병배 박민희 박관근 방은영 배준안 백병희 서종순 손영길 손화철 송승태 신국진 신우철 신호규 심순실 안성도 양나복 오일호 우현수 유근호 유영미 유혜민 윤기정 윤신희 윤철중 윤치호 이명자 이문규 이미순 이상민 이상진 이수경 이원영 이은숙 이재문 이정 정은 임병호 임정수 임혜정 장영순 정광연 정민정 정은영 조영관 조윤형 최성수 최영식 최희영 최은신 최종현 최해홍 최혜원 한국의 한병신 허주희 홍관수 홍인종 (2만5천)이범식 (3만)김선옥 김성현 김철준 박재우 박종진 백기수 서진희 손기식 손부영 신종현 엄용환 유신오 윤혁경 이송자 이준규 이희식 정문희 정유정 조열재 채종석 최동욱 한상규 홍대식 황기민 황석주 (4만)박상배 류인복 박희정 방신기 최국희 함부식 (5만)권강희 김경태 김명심 김상한 박종은 박창근 신은정 임종우 전형준 정철도 정지화 조성규 조현희 최광서 최승연 최태연 (5만5천)조홍식 (6만)백요한 정영호 (10만)김동호 김신옥 김인숙 김일수 김중환 나영재 이인근 이진자 임지용 황형태 (12만)양세진 (15만)손봉호 (16만2천5백)이희용 (20만)정영란 김구 김대준 이창규 전제중 정광재 (30만)우창록 이우근 (50만2천)임성민

교회·기관후원금

(1만)광영교회 동서장로교회 서울일본교회 (2만)벚파스교교회 할미교회 (3만)은평침례교회 (5만)나동교회 늘푸른교회 마산제기교회 밀양교회 부원천교회 서울광영교회 서울영동교회6여전도의 서울영동교회화산교회 수경교회 지구촌교회 (6만)안약교회 (8만)강변교회 (10만)고척교회 남서울교회 다나엘교회 대신감리교회 대주산교회 동부광성교회 두레교회 목민교회 민들레교회 반월중앙교회 부천예인교회 분당샘물교회 분당사랑교회 서울남교회 서울중앙교회 산남교회 언덕교회 영세교회 은혜영광교회 일산은혜교회 잠실중앙교회 전주안디옥교회 정읍중앙교회 지미전터내서넬 (15만)향상교회 (20만)공사성무교회 안암예인교회 일원동교회 정랑교회 할렘루미아교회 (40만)남서울은혜교회 (75만)한영교회 (100만)높은뜻은교회 서울영동교회 의료법인효산의료재단생안양병원 지구촌교회 (200만)사랑의교회

활동보고
활동계획
기도제목 #

- 2/01(금) 간사 정책워크숍
- 2/12(화) 1차 회원정책자문단 회의(기윤실 사무실)
- 2/17(일) 청량교회 신뢰지표설문조사
- 2/17(일) 입시·사교육 바로세우기 기독교운동
(이하 입사기운동) 3차 준비모임
- 2/19(화) 2차 회원정책자문단 회의(기윤실 사무실)
- 2/21(목) 2008년 2차 이사회(울촌)
- 2/22(금) 신뢰ilter 시민모임(대장금)
- 2/25(월) 2008년 회원정기총회
- 3/09(일) 남전주성결교회 신뢰지표설문조사
- 3/13(목)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독교NGO의 비전과
사명" 강연회(굿네이버스)
- 3/16(일) 입사기운동 4차 준비모임
- 3/23(일) 아현감리교회 신뢰지표설문조사
- 3/27(목) 1회 창의여성 회원모임
- 3/30(일) 입사기운동 5차 준비모임
- 4/01(화) 입사기운동 1차 목회자 간담회
- 4/03(목) "정치적 제지도와 기독교인의 선택"
세미나(서울영동교회)
- 4/08(화) 1차 기윤실 목회자 리더십 포럼
(서울영동교회)
- 4/09(수)-10(목) 간사 워크숍(가락재영성원)
- 4/13(일) 입사기운동 6차 준비모임 /
사천읍교회 신뢰지표촉정
- 4/15(화)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공동대표 회의
- 4/17(목) 1차 기윤실 목요포럼 _노영상 교수(삼각교회)
- 4/18(금) 이사영성수련회(덕수교회)
- 4/22(화) 교회재정운영규정에 관한 공청회(명동 청어
람) / 건강한 교회조직만들기 세미나(서현교회)
- 4/24(목) 신뢰일구미 1차 모임
- 4/25(금) 2회 창의여성 회원모임 /
3기 기독교와 여성 소그룹 성경공부 1주차
- 4/26(토) 4차 공공신학 세미나(여전도회관)
- 4/27(일) 반월중앙교회 신뢰지표설문조사
- 4/28(월)-30(수) 신뢰받는 목회자를 위한 7가지 습관
리더십 워크숍(분당 지구촌교회)

활동
스케치



3/27(목) 1회 창의여성 회원모임

김은혜 본부장과 작년 '기독교와 여성' 성경공부 수료자, '창의 여성리더십 아카데미' 수료자, 그리고 새로운 회원까지 모두 11명이 참석하여 서로 소개하고 모임의 방향과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매월 네번째 목요일 저녁 7시에 모여, 기윤실의 운동정신을 공유하고 서로 지지하며 세상에서 정직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창의여성회원 모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담당! 윤나래 간사 joyfuln@dreamwiz.com

4/08(화) 1차 기윤실 목회자 리더십 포럼(서울영동교회)

기윤실은 목회자들의 도덕적 리더십회복을 통한 교회신뢰회복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기윤실 목회자 리더십 포럼>을 조직 중에 있습니다. 창립에 앞서 내부 토론회 형식의 1차 포럼을 '한국교회 목회자 리더십의 위기진단과 대안적 모색'이란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와 황영익 목사(서울남교회 담임)께서 발제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담당! 조제호 팀장 jehoc@hanmail.net

4/17(목) 1차 기윤실 목요포럼 "저자와의 만남" _노영상 교수(삼각교회)

노영상 교수의 "마가복음에 피어오른 구원무지개"라는 책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보다 풍성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자가 책에서 언급하셨던 것과 같이 위 책은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키워드로 구원, 예수 그리스도, 믿음, 제자도라는 네 가지 영역을 다루고, 교리적인 각도라기 보다는 윤리적인 시야에서, 마가복음에 피어오른 무지개 같은 다양한 구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담당! 임희연 간사 lhy1244@naver.com



4/22(화) 교회재정운영규정에 관한 공청회(명동 청어람)
교회재정투명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기운실은 “건강한교회재정 확립네트워크(이하 재정네트워크)” 통해 작년 말 개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재정규정(정관 및 규칙)을 개발하여 제시한 바 있고, 좀 더 효과적으로 개 교회에 보급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청회 이후 교단별로 상이한 용어와 조직구조, 규모에 따른 적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5월에는 교단별, 규모별로 상이한 교회들을 선정하여 파일럿 테스트 개념의 설문조사를 통해 개 교회에 적용시 어려움과 효과적인 방안을 보완하여 가이드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관심가지고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담당* 최옥준 간사 chamcuj@hanmail.net

활동계획

- 4/25(금)-5/26(월) 3기 기독교와 여성 소그룹 성경공부(7주)
- 5/15(목) 2차 기운실 목요포럼 이종록 교수(삼각교회)
- 5/22(목) 신뢰회복캠페인 기자간담회
- 5/22(목)-6/26(목) 2기 창의여성리더십아카데미(6주)
- 6/03(화)-7/08(화) 기운실 성경묵상 모임(6주)
- 6/19(목) 3차 기운실 목요포럼 손봉호 총장
- 7/05(화) 5차 공공신학 세미나(장소미정)



6월 신뢰회복 캠페인 기운실은 6월 한달동안 한국교회의 신뢰회복운동 확산과 기운실 운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회원배가캠페인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도제목

- 1_2008년 기운실 핵심사업 관련하여 기운실의 사역과 활동 방향이 잘 정립되어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실질적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2_기운실 사무처에서 실무를 감당하는 간사들의 역량 향상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3_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신뢰 향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확장을 위해 선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기운실이 이를 위해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창의여성리더십아카데미

주제 | 교회 여성이 바라보는 섹슈얼리티와 가정

취지 | 기운실 창의여성리더십위원회에서 제 2기 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이번 아카데미의 주제는 교회 여성이 바라보는 섹슈얼리티와 결혼과 독신, 가정입니다. 다변화되는 사회속에서, 이 주제들에 대하여 성경이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강의와 워크숍을 통하여 각자의 삶을 점검하고 서로 힘을 얻으려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5월 22일, 28일(섹슈얼리티) / 6월 5일, 12일(결혼과 독신) / 6월 19일, 26일(가정)
- 장소 신촌 토즈 www.toz.co.kr ● 회비 6만원
- 문의 윤나래 간사 017-539-7227, joyfuln@dreamwiz.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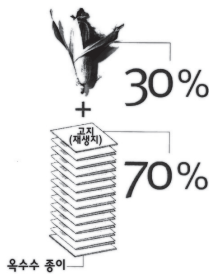


비목재종이를 아시나요?

정리 조제호 팀장

1. 종이는 목재펄프로만 만든다?

종이가 목재펄프로 만들어진 때는 1850년대 이후로, 불과 150여년 전의 일이다. 현재 전세계 산림벌채의 12%가 종이에 쓰이고 있는데, 나무의 50% 정도만이 종이를 만드는데 필요한 섬유질이다. 목재펄프를 발견하기 전까지 세계 곳곳에서는 그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식물섬유소로 종이를 만들어 왔다. 천년을 간다는 우리의 종이 한지가 대표적이다.



2. 목재펄프로 종이를 만드는 것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목재펄프에서 종이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비섬유 물질인 리그닌을 제거하고, 화학약품으로 처리해 불필요한 성분을 제거한 후 표백하여 사용합니다. 화학약품과 표백을 할 때 엄청난 양의 물을 필요로 하며, 저렴한 연소 표백을 하면서 각종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연간 3억톤의 종이를 생산하기 위한 벌채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해 주는 산림자원의 고갈로 이어져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목재펄프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있나요?

크게 재생지 사용과 비목재종이 사용으로 나눌 수 있다. 재생지의 경우 목재펄프로 종이를 만드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생산공정에 화학약품 처리와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재생지의 특성상 색의 재현성이나 강도가 나쁘고 부스러기가 나오는 등의 문제로 질 좋은 인쇄나 컬러 인쇄에는 부적합하기도 하다. 이런 재생지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비목재종이이다 할 수 있다.(재생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4. 비목재종이는 무엇인가요?

비목재종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목재펄프를 사용해 종이를 생산하기 전까지 애용해 오던 인류 전통의 종이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케나프(아욱과 허비스커스 속 1년초 식물), 바가스(사탕수수 줄을 찢낸 찌꺼기)가 있으며, 대나무, 바다해초, 대마, 아마, 면, 톨립 줄기나 토마토 줄기, 바나나 껍질 같이 섬유소가 들어있는 식물이면 뭐든지 종이원료가 될 수 있다. 볏짚, 커피가루, 차찌꺼기, 콩깍질 같은 농작물 잔여물도 종이로 다시 태어난다.

대표적인 비목재종이인 '케나프(kenaf)'는 활발한 연구 및 개발을 통해 현재 전세계 공급량의 9%를 담당하고 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모로콜라, 디즈니 등이 케나프 종이를 사용해 연례보고서를 제작한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홍조류와 감귤껍질을 통해 종이를 제작해 보급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중이고, 기업들 중에도 친환경을 부각시킨 상품의 라벨이나 포장지를 비목재종이와 콩기름으로 인쇄하고 있다.

5. 비목재종이 사용의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비목재종이는 몇해 동안 저장해 쓸 수 있는 나무와는 달리 제철에 수확해 저장, 수송해야 하고, 기존의 목재펄프 공장에서는 생산할 수 없어 대규모로 만들어 값싼 가격에 공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유통되는 비목재종이가 대부분 수입산(90% 일본산)이라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어, 친환경적인 면이 퇴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거대한 장치산업 제지업은 수요에 따라 종이 원가가 결정된다. 지금은 비목재종이(재생종이) 수요가 극히 적어 원가가 높지만, 대량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면 가격도 낮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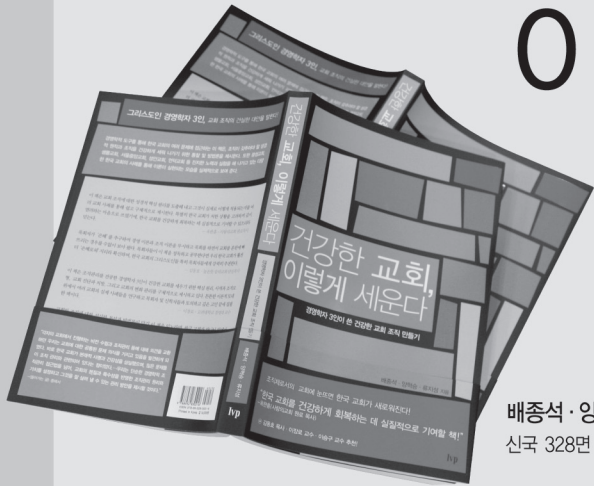
검색 케나프, 재생지, 비목재종이 등으로 검색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작은것이 아름답다 2007년 10월호(녹색연합)
- 비목재펄프 종이 사용 확산을 위한 계몽 포스터 디자인(정연란 석사학위 논문, 국민대학교, 2005)
- 종이 : 일상의 놀라운 발견 (시공 디스커버리총서 103)
- 두성종이의 환경과 에콜로지 페이퍼(두성종이 홍보물)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



크리스천 경영학자 3인이 쓴,
건강한 교회 조직 만들기

배종석·양혁승·류지성 지음
신국 328면 | 14,000원

“우리는 단순한 경영학적 조직 관리 접근법을 넘어, 교회의 본질과 특수성을 반영한 조직 관리 원리와 가치를 설정하고 그것을 잘 살려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들어가는 글’에서

“저자들은 교회 조직에 대한 성경적 핵심원리를 도출해내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여러 교회 사례를 가지고 쉽고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쓰였기에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옥한흠, 사랑의교회 원로목사

“나는 목회자들이 이 책을 정독하고 공부한다면, 한국교회가 훨씬 더 은혜스러워지리라 확신한다.” - 김동호, 높은뜻송의교회 담임목사

“조직 관리를 전공한 경영학자 3인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핵심원리, 사역과 조직모형, 교회 진단과 처방, 그리고 교회의 변화 관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이장로, 고려대 경영대 교수

★옥한흠 목사, 김동호 목사, 이장로 교수, 이승구 교수 추천!



실천하는 기운실, “종이컵은 사양합니다.”

2008년 기운실 주요 운동 방침 중 하나는 기운실이 신뢰운동을 하기 위해 우선 기운실 자체가 신뢰 받는 시민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기운실은 1987년 세계환경발전위원회에서 나온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기운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부터 실천하기로 다짐하고, 그 첫 번째로 “종이컵 쓰지 않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운실 사무실에서는 일체의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외부 행사의 경우도 가능한 종이컵의 사용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이컵은 씹는데 20년 정도가 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직원이 20명인 사무실에서의 사용량이 한달에 2천개, 학생수가 2만명인 대학교의 하루 사용량이 4만개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종이컵에는 비닐이 첨합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와 함께 섞이면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컵만 별도로 모아서 전문 재활용 업체에 넘겨야 재활용이 가능한데,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종이컵은 부피가 작기 때문에 재활용품으로 그나마 분리배출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한 종이컵은 100% 천연펄프로 만드는데, 일회용 종이컵 1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20년생 나무 20그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종이컵을 사용하면 할수록 숲이 그만큼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www.waste21.or.kr에서 발ছে

한편,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그잔을 씻는데 물과 세제가 사용될 뿐만 아니라, 머그잔 자체도 평생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컵 쓰지 않기” 운동이 환경 보전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되려면 다음의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머그잔은 튼튼하고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최대한 오래 사용한다.
(예쁜 머그잔이 나올 때마다 새로 구입한다면 이 또한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 음료를 마신 후 가능한 빨리 컵을 씻되, 적은 양의 물로 행구고 될 수 있으면 세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종이컵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과도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혹, 쓰시려면 이렇게~

실제적 제안

우리 기운실 회원들께서도 “종이컵 쓰기 않기” 운동에 한번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 머그잔을 사기 위한 초기 비용이 조금 들긴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한번 쓰고 버리는 종이컵보다 훨씬 유용한 건 말할 것도 없고, 혹 조금 귀찮고 비싸더라도 우리의 이런 작은 희생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사무실, 교회의 부서별 모임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Let's do it together!

